

# “운전이 즐거우면 잘 팔린다”... 고성능차 경쟁

언비를 주로 따지던 국내 소비자들이 운전의 즐거움에도 관심을 돌리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업체들이 속속 비싼 고성능 모델을 출시, 고성능차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모터스포츠 차량급 첨단 기술을 갖춘 모델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국내·외 업체들이 고성능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내 고성능차 시장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업체인 현대차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 고성능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BMW 고성능차 개발총괄책임자인 앨버트 비어만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뒤 관련 기술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는 N이다. N 브랜드 첫 번째 양산차인 'i30N'이 하반기에 유럽부터 출시된다.

현대차는 가혹한 주행 조건 속에서 i30N의 내구성과 성능을 점검하며 출시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고성능 스포츠카 개발에도

기아차 스팅어 최고 사양 모델 3.3 터보에 GT 적용

현대차 'i30N' 하반기에 유럽 출시... 스포츠카 개발

벤츠 AMG 올 'E 63 S 4MATIC+' 모델 출시 예정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기아차 역시 고성능 차량 전용 엠블럼인 'GT'를 도입했다. 최근 K5 라인업에서 국내 처음으로 'GT 모델'을 출시했고 스팅어의 최고 사양 모델인 3.3 터보에도 GT를 적용했다. 기아차는 앞으로 출시될 신형 K3에도 GT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성능차를 통해 기술력을 홍보하거나 관련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도 대중이 애용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만드는 메이커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차 업체는 고성능차 시장 경쟁에서 이미

앞서 있다.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는 대표적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AMG가 꼽힌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AMG는 '1인 1엔진'이라는 철학에 따라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량을 내놓고 있다. 1인 1엔진은 엔지니어 한 명이 AMG 엔진 하나의 조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한다는 뜻이다.

AMG는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S클래스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여러 모델로 출시되고 있다. 메르세데스-AMG는 지난 서울모터쇼를 통해 'E 43 4MATIC' 모델을 선보였고 올해 'E 63 S 4MATIC+'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면서 국내 판매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연간 판매량이 776대에

그쳤지만 지난해 2057대로 경쟁 뛰었다. 올해는 4월까지 이미 905대가 팔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났다.

BMW의 고성능 브랜드는 M이다. '일반도로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카'라는 개념 아래 1984년 M5 모델이 처음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620대가 팔렸다. 전 세계 11위 규모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M 브랜드 판매량이 많다. 올해도 4월까지 238대의 M 모델이 팔렸다. 지난 11월에는 최고 출력 370마력에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3초에 불과한 뉴 M2 쿠페를 출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MW는 “M3, M4 컨버터블, X5 M, X6 M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우디는 S, 폭스바겐은 R, 렉서스는 F 시리즈를 통해 각각 업체의 자존심을 건 고성능 모델을 과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가족과 함께 토요타 시승하면  
호텔식사권·영화관람권 드려요



토요타 중형 세단 캠리. <토요타코리아 제공>

토요타코리아는 6월 한 달간 가족 단위로 토요타 전시장 방문 시승하는 고객에게 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선물은 4인 가족 호텔식사권부터 레고 장난감과 영화관람권까지 준비된다. 월말에 전시장별 추첨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된다.

토요타는 또 6월에 중형 세단 캠리(가솔린·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0년 20만km까지 엔진오일과 엔진오일필터를 무상 교환할 수 있는 쿠폰도 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중국 친환경차 시장 '쑥쑥' 전기차 구매 의사 가장 높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을 밀쳐잡지 않고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전망이다.

중국은 향후 전기차 구매 의사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미국은 최하위에 머물러 성장동력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독일 컨설팅회사 롤랜드버거가 최근 전 세계 10개국 소비자 1만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기차 구매 의사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었다. 주요 10개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 포함됐다.

중국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0%)이 다음 차량 구매 시 전기차를 선택하겠다고 밝혀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았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5명(54%)이 전기차 구매 의향을 나타내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위는 차세대 거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51%)가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의사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다음 차로 전기차를 고려한다는 답변이 10명 중 2명(20%)에 그쳐 전기차의 인기가 가장 낮았다. 일본 역시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22%에 불과했다.

글로벌 정보분석업체 닐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분석됐다.

닐슨의 '2017 친환경 에너지시장 통합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52%)은 친환경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기차는 27%, 하이브리드차는 25%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의 친환경차 구매 의향은 2012~2013년 3%에서 2014년 19%로 급증한 뒤 2015년 22%, 2016년 36%, 2017년 52%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연합뉴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 63 S 4MATIC+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기아차 '스팅어' <기아차 제공>

## 벤츠 '더 뉴 GLS 500 4매틱' 국내 출시

최고급 플래그십 SUV S-클래스

'AMG GLC 43 4매틱 쿠페'도 나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S-클래스를 표방하는 최고급 플래그십 SUV '더 뉴 GLS'의 최상위 모델인 '더 뉴 GLS 500 4매틱'을 지난 2일 국내에 출시했다.

최고급 플래그십 SUV인 '더 뉴 GLS'는 작년 10월 디젤 모델이 국내에 먼저 선을 보였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GLS의 최상위 모델 '더 뉴 GLS 500 4매틱'은 V형 8기통의 강력한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455마력, 최대 토크 71.4kg·m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또 이 차에는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와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이 추가된 6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다이내믹 섀시와 에어 서스펜션, 최신 4매틱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국내 판매 가격은 1억51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중형 사이즈 SUV 쿠페 '더 뉴 GLC 쿠페'의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 쿠페'를 국내에 출시했다.

SUV와 쿠페를 결합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 쿠페'는 더 뉴 GLC 쿠페 라인업 최초 고성능 버전이다.

최고출력 367마력, 최대 토크 53.0kg·m의 성능을 내는 3.0리터 V6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더 뉴 GLC 쿠페를 국내에 출시하며 총 7종의 SUV 패밀리를 완성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 중 가장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갖췄다.

국내 판매 가격은 976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더 뉴 GLS 500 4매틱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 쿠페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경매 추천 물건

- ★ [근린주택] 광주 남구 서동 3층건물 대지261㎡ 건물 379.44㎡ 감정가 5억 3천3백
- ★ [주택] 광주 동구 동명동 단층건물 토지 149㎡ 건물 68.85㎡ 감정가 9천6백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다가구] 광주서구 화정동 4층건물 토지310.4㎡ 건물 518.63㎡ 감정가 7억8천5백 ▶ 최저가 5억5천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5153㎡ 건물 1798.58㎡ 감정가 17억8천8백만 ▶ 최저가 10억2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